

충북MBC 웹드라마 <인물별 대사>

① 권도영(남성,29세,청년농부)

1. (눈을 떠보니 부동켜 안고 잠든 체리, 질색하며) 으악! 넌 또 왜 여기!
(무안하지만 그리 싫지는 않은, 괜히) 넌 요즘 뭐가 그렇게 신났냐?
이리저리 들쭉시키고 다니고 아예 진짜 놀러왔게? (기가찬) 시골에서, 특히
여자로 사는데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농사는 가만있으면 알아서 싹
나고 열매 열리는 줄 알지? 작정을 해도 버거울만큼 몸 상해가며 희생해야
본전이야. 니 손으로 싹이라도 틔워본 적 있어?

2. (체리 상처 치료하며) 눈을 땔 수가 없네. 가만히 있어. 뭐가 아프다고
엄살이여. 그.. 뭐 내가 인스타로 너 알고 있던거 들켜서 하는 말인데
태양인지 뭔지 그 놈 좀 그래. (체리: 니가 뭘 상관 투덜대면 흥분해서)
관상이 별로여 관상이! 울 할배가 그랬어. 잘생긴 놈들은 얼굴 값 한다구.
(작은 소리로) 뭐 얼굴은 내가 더 나은 거 같긴 한디. (괜히 세계 반창고
붙이며) 됐어. 가!

3. 매일같이 남이 광 낸 구두에 잘 대려진 와이샤스 입고 출퇴근하는
아부지가 농사를 알어요? 새벽이슬 맞아가며 매순간 돌아보고 가꾸는 그
피땀 어린 정성을 아느냐 구요? 나는요.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이 아니어도, 내가 공들여 어루만져 키운 것이 아프면 이 뺏속까지
아려요. 아버지한테 나는 요? 어머니는 요? 그 맨치 아니잖아요.

② 정태양(남성,27세, 파워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백수&체리 전 남자친구)

1. (통화) 아니 저 할 수 있다니깐요? 제가 올리면요 바로 완판이에요.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

이 인플루언서라는게 말이죠. 저 정태양이 자체가 브랜드라구요. 연예인들
쓰면 뭐합니까, 나가는 돈이 억대인데. 그냥 저한테 주시고 시마이하시죠.
네? 아니이, 팔로워도 하루에 백명씩은 오르고 있어요. 홍보고 매출이고
내가 하면 대박터진다구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핸드폰을 침대 위로 던지며)아오씨.. (던진 핸드폰을 다시 조심스럽게
주워서 인스타를 확인한다) 하.. 한체리 그것만 있었어도.. 대체 어디로 콩콩
숨은 거야? 나와라 나와. 한체리..한체리!!한체리익!!!!!!!

2. 누나아 진짜진짜 보고 싶어쨌. 하필 그때 폰도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어디봐. (체리얼굴 감싸고) 자긴 나 없이 정말 괜찮았던고야? 다친덴 없어? 호오~ 우리 체리. (소중히 안는)

3. (통화하는)그래 임마! 체리 저게 왜 이 촌구석에 틀어박혀 있나 했더니 물주 제대로 잡았어. 즐라 부자야. 하, XX.. 한체리가 다시 나한테 넘어오긴 글렀고. 너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준비해서 올 수 있어? 큰 거 하나 잡자.

③ 한체리(여성,30세,인플루언서)

1. 안뇽~~(댓글 읽으며) 언니 생일 축하해요. 고마워요 우리 블라썸들 밖에 없다 그치?

친구들이요? 잠깐 화장실. 짬내서 우리 블라썸들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려고요.

집이요? 아 지금은 이사 준비로 어수선해서 안돼여~

저 내일 이사 가잖아요. 그 때 한강뷰 제대로 보여줄께.

(댓글 읽으며) 언니 얼굴 광 미쳤음 뭐 바른 거 예요?

광 대박이죠? 이번에 테스터해본 건데 (화장품 보여주며 씯) 지금 사지 마요. 내가 곧 반값에 데려온다니까?

2. 뭐야. 완전 내 Fan이었잖아? (도영 들어오면 핸드폰 들이밀며) 저기요.

저 모르신.다.면서요. 이거이거 팔로우 뭐야? 좋아요.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구 그렇게나 좋아요? 도대체 언~제부터! 날 이렇게 좋아했던 거야?

덱석 나랑 결혼한다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어? 근데 이 구려 터진 계정은.. 설마..네꺼야? 내가 한 수 알려줘?

3. (울먹이며 상직에게) 할배.. 저는 진짜요.. 처음엔 씨꺼먼 속내로 시작한

게 맞긴 한데요. (가슴에 손을 올리며) 지금은 아주 핑크 핑크 하거든요??

아줌마 아저씨한테두 너무 미안하고.. 할배 할매들한테두 .. 저 진짜 쓰레기

같죠? 완전 제멋대로야. 근데 어떡해요. 모두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잖아요..

이런 포근함 진짜 .. 너무 오랜만이라 마음이 핑크 핑크해졌다구요.. 이게 다 권도영 때문이야 (오열)